‘사회적경제 현재 · 미래’ 한자리에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JEONJU’ 성황리 열려

경제활동과 더불어 공동의 이익과 나눔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전주에서 펼쳐졌다.

전주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시청 앞 노송광장 일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JEONJU’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체험 또는 구매하고, 사회적경제 정책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연계 행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연대경제 축제로 꾸며졌다.

‘S+회연대경제로 세상을 E롭게’라는 표어(슬로건)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개막식 △폐막식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시·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판매체험관’ △사회적경제 정책과 역사, 자치단체 정책을 알아볼 수 있는 ‘정책홍보관’ △정책포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로 풍성하게 치러졌다.

먼저 첫날 오후 3시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민·오춘자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타악 공연과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등을 통해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시청 앞 노송광장 일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in JEONJU’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판매체험관’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체험할 수 있었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와 자금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위한 공공·민간 상담관도 함께 진행됐다.

여기에 새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에너지전환과 통합돌봄, 지역순환경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도 개최됐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사회적경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 창업 박람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을 발표하는 ‘IR 전국 발표대회’ △사회적경제의 가치인 상생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상생오락실’ △사회적경제 관련 퀴즈를 통해 참가자들의 사회적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협동골든벨’ △스탬프투어 △쿠폰지급 프로모션 등도 운영돼 사회적경제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도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 강화,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안정성과 통합적 발전을 위해 오랜 숙원인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사회적 가치 확산에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함께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준 박람회 민관공동추진위원회와 지역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연대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생명나눔 가치 실천 귀감

전주시 덕진구청 황옥 주무관, 헌혈 500회 달성

전주시 덕진구청의 황옥 주무관이 헌혈 500회를 달성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생명나눔의 참된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쁨은 두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눔정신을 실천에 옮겨 대한민국 헌혈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으로 지역사회에 큰 감동과 귀감이 되고 있다.

황 주무관은 1991년 고등학생 시절 첫 헌혈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꾸준히 헌혈을 이어오며 총 500회의 헌혈을 실천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개인의 봉사를 넘어, 전주시민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생명나눔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옥 주무관은 “헌혈은 작은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비빔밥축제’서 미래형 스마트농업 전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시형 스마트팜 · 쌀 소비촉진 행사 진행

전주시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주의 매력을 오감으로 소개하는 ‘2025 전주비빔밥축제’ 현장을 찾았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 ‘2025 전주비빔밥축제’ 현장에서 미래형 스마트농업 기술 홍보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전시·체험 부스 운영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협업 부서로 참여해 추진한 것으로,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미래 농업 기술과 농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동시에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올해 상반기 ‘이팝나무 철길 개방행사’와 ‘정원산업박람회’에서 호응을 얻었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 재구성됐으며,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스마트 농업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운영됐다.

또 축제 부스에는 LED 조명과 온습도 자동제어 기능을 갖춘 3단 버티컬팜(Vertical Farm) 구조의 스마트팜이 설치돼, 유럽상추 6종이 생육 단계별로 수경재배 전시됐다.

특히 방문객들은 LED 스펙트럼(화이트·블루·레드) 버튼 작동 시연에 직접 참여하며, 계절 제약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미래농업 기술 구현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단순 관람을 넘어 참여자가 모종을 심고 이름표를 부착하며, 생육 과정을 체험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돼 현장 몰입도를 높였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직접 유럽상추 모종을 직접 식재 한 뒤 이름 또는 식물명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하며 개인 참여 요소를 더했으며,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 작동 체험도 진행돼 현장 참여도를 높였다.

시는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와 협력해 현장 즉석 쌀 뻥튀기 시연 및 나눔 행사를 운영하며, 지역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촉진 메시지를 현장에서 전달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주비빔밥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인 만큼, 시민들이 실제로 작물을 심어보고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작동해보는 현장형 농업 홍보 모델을 선보일 수 있었다”면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도심 속에서 미래농업의 가치와 지역 농산물 소비의 의미를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작은도서관 연합 책축제 ‘책 익는 가을’ 개최

책의 도시 전주에서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철을 맞아 작은도서관들과 함께하는 책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1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연합 책축제인 ‘책 익는 가을’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전주시 97개 사립작은도서관이 함께 준비한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독서 기반 지역활성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책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독서체험부스 △어린이 책플리마켓 △책멍공간 △특별공연 △독서골든벨 △먹거리 부스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과 함께 책의 즐거움을 즐기고 나눌 수 있다.

먼저 ‘독서체험부스’에서는 작은도서관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부스에서는 새활용센터 입주기업이 동참해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책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어린이 책플리마켓’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해 집에서 읽은 책이나 중고생활용품을 판매·교환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로, 아이들이 직접 상점을 꾸미며 나눔과 교류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유롭게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책멍공간’, 작은도서관과 지역 공연팀이 함께하는 무대공연, 독서골든벨, 먹거리 부스와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사회 안전망 강화’ 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공은태 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공은태 회장과 완산 송미숙·최영관 회장, 덕진 강정석·김선희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여건과 안전 장비 확충, 복지 향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은태 회장은 “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주시의회도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김세혁 전주시의원, 경찰의 날 기념 감사장 받아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지난 23일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유오계)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평소 경찰행정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주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역의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당 조례는 교통경찰을 보조하며 수신호와 경광봉 등을 통해 교통정리를 지원하는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날을 기념해 감사장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찰과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